

#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간의 관계

조인영\*

<sup>1</sup>동강대학교 간호학과

## The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Young Cho\*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Dong K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K시에 소재한 3년제 간호학과, 4년제 간호학과 재학생 223명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5일부터 2013년 12월 20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간호활동경험( $r=.243, p<.01$ ), 자기주도성과 임상실습만족도( $r=.495, p<.001$ ), 간호활동경험과 임상실습만족도( $r=.339, p<.001$ ) 모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기주도성과 간호활동경험은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회귀모형의 28.7%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함양 및 간호활동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한 임상실습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23 nursing Students in K City who were surveyed using self report questionnaires from December 5 to December 20 an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0.0.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e predi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for Nursing students were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nd the factors explained 27.8%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a foundation to develop efficient Clinical Practice program to improv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elf-Directednes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학습성과 기반 현장실무 능력 강화 지침에 따라 간호임상실습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1]. 임상실습교육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이론에서 익힐 수 없었던 간호 기술뿐만

아니라 간호사로서의 가치관과 태도를 직접 실무에 적용하는 현장교육으로서[1,2], 신규간호사로서의 간호활동 수행에 밑바탕이 된다[3].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규정에 따르면 간호 임상실습교육은 22-24학점, 1,000시간 이상이 요구되는 필수교육과정이다[4,5]. 하지만 최근 간호대학생 수의 증가로 인해 우수한 실습 기관의 확보가 어렵고 현장교육

\*Corresponding Author : In-Young Cho(Dong Kang University)

Tel: +82-10-4696-5348 email: ciy1024@dkc.ac.kr

Received February 14, 2014

Revised March 17, 2014

Accepted June 12, 2014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은 직접 간호를 수행해볼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고, 관찰 위주의 제한된 실습 교육을 받고 있다[6,7]. 또한 미국 간호교육기관의 임상실습교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미국간호연맹(National League of Nursing)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습기관의 확보 부족, 자격을 갖춘 현장실습지도자 부족 등의 요소들로 인해, 간호대학생은 간호활동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러한 실습현장의 제한으로 인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급속하게 변화하는 임상환경에 대응하며[8], 임상에 필요한 간호활동을 수행해나갈 수 있는 자기 주도성이 중요하다. 자기주도성은 국내, 외의 간호교육에서도 그 필요성이 많이 강조되어 온 개념으로서[8],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실습 요구를 명확히 하고 목적을 세워서 실습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원동력이 되며 간호대학생의 역량강화에 필수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9]. 특히 간호대학생은 학과의 특성상 본인의 선택이 아닌 학과에서 정해진 교과과정에 의해 학습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호대학생 스스로가 실습 목적에 따른 전략을 세워서 책임감을 가지고[10], 다양한 간호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이 향후 간호사로서 필요한 간호활동을 임상실습을 통해 경험하지 못할 경우 대상자에 대한 임상수행 및 지식의 활용에 많은 제한점을 느끼게 되고[11], 이는 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12]. 그러나 간호대학생이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임상실습에 임할 경우 긍정적인 역할 경험과 다양한 간호활동경험을 축적하게 함으로써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13].

지금까지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는 변인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14], 기존의 선행연구는 자기효능감[15], 성취동기[16], 임상수행능력[16,17], 전문직 자아개념[17]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간호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큰 바탕이 되는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간호활동경험에 대한 연구는 간호활동경험정도[6], 간호활동시간을 분석한 연구[11] 등에 국한되어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종합적인 결정능력이 요구되는 복잡한 간호현장에서[18] 간호사로서 자기주도적인

간호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을 측정하여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임상실습 중 경험한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활동경험 증진을 위한 임상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임상실습 중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간호활동경험의 영향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K시에 소재한 3년제 및 4년제 간호학과 재학생으로,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목적 및 필요성, 방법을 이해하고 자료수집에 참여를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223명이다.

연구 대상자 수는 표본수 산출 프로그램 G-power 3.10[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30으로 계산하였을 때 양측 검정에서 표본 크기는 134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자수 223명은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은 학습자의 인성적 특성으로서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도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합한 사고와 행동을 의미한다[20].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Guglielmino 등(1987)[20]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SDLRS)도구를 Yoo(1997)[21]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실습에 대한 애착, 실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실습에 대한 호기심, 실습에 대한 자기이해, 실습에 대한 책임수용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의 도구로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1997)[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3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1이었다.

### 2.3.2 간호활동경험

간호활동경험은 임상실습과정 동안의 간호활동에 대해 수행경험, 관찰경험, 미경험의 경우를 의미한다[6].

본 연구에서 간호활동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대한간호협회(2004)[22]에서 진술한 총 12개의 간호표준을 Cho와 Kwon(2007)[6]이 현 학제의 교과과정과 실습 운영을 반영하여 수정한 간호활동 도구를 본 연구자가 임상실습지도자 2인과 임상경험 5년 이상의 간호사 3인,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교수 2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수정한 간호활동항목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료 수집,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윤리, 협동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1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각 항목에 ‘수행경험이 있다’, ‘관찰경험만 있다’, ‘수행, 관찰 경험 모두 없다’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 2.3.3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임상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및 실습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의 정도를 의미한다[23].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Cho와 Kang(1980)[24]이 개발하고, Lee 등(2004)[2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실습교과 만족도, 실습내용 만족도, 실습지도 만족도, 실습환경 만족

도, 실습평가 만족도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의 도구로 각 항목에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2004)[25]의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87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이었다.

##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 참여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설문지 작성 중 언제라도 연구의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3년 12월 5일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미 응답이나 불명확한 설문지 7부(3.0%)를 제외한 223부를 분석하였다.

##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임상실습만족도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 검사인 Cronbach’s alpha 테스트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임상실습만족도는 t-test,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223명의 대상자 중 3학년이 154명(68.9%)이었고, 4학년은 69명(31.1%)이었으며, 여학생이 193명(86.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본인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진학한 대상자가 148명(66.5%)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에 의

해 진학한 대상자가 7명(3.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98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가 68명(30.5%), '아주건강하다'는 응답이 52명(23.2%)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학 전공만족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120명(53.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만족 93명(41.5%), 불만족 10명(4.8%)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는 실습 중 수간호사와의 관계(152명, 68.3%)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 of Subjects

(N=223)		
Characteristic	Category	N(%)
Grade	3	154(68.9)
	4	69(31.1)
Gender	Male	30(13.4)
	Female	193(86.6)
Motivation for Entering College	Own choice	148(66.5)
	By grade	7(3.0)
	Family recommendation	54(24.4)
	Teacher, friend recommendation	14(6.1)
Health State	Very healthy	52(23.2)
	Healthy	98(43.9)
	Not bad	68(30.5)
	Bad	5(2.4)
Major Satisfaction	Satisfy	93(41.5)
	Normal	120(53.7)
	Dissatisfy	10(4.8)
Difficult Relationship	Relation with head nurse	152(68.3)
	Relation with other field Staff	15(6.7)
	Relation with patient	23(10.3)
	Relation with Colleague	33(14.7)

### 3.2 대상자의 자기주도성, 임상실습만족도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은 5점 척도에 평균 '3.63±0.83점'이었으며, 자기주도성의 하위 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실습에착(3.81±0.80점)'이었다. 그리고 '자기이해(3.75±0.76점)', '책임수용(3.62±0.72점)', '자기확신(3.61±0.78점)', '자기개방성(3.53±0.89점)', '주도호기심(3.48±0.86점)'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 척도에 평균 3.27±0.88점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실습교과(3.66±0.85점)'이었다. 그리고 '실습시간(3.34±0.82점)', '실습환경(3.32±0.85점)', '실습내용

(3.22±0.94)', '실습지도(3.19±0.79점)' '실습평가(2.88±1.00점)'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223)	
Category	Mean±SD
Total Self-Directedness	3.63±0.83
Love of practice	3.81±0.80
Self understanding	3.75±0.76
Responsibility for own's practice	3.62±0.72
Self-confidence as a learner	3.61±0.78
Open to challenge	3.53±0.89
Curiosity about practice	3.48±0.86
Total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3.27±0.88
Practice curriculum	3.66±0.85
Practice time	3.34±0.82
Practice environment	3.32±0.85
Practice contents	3.22±0.94
Practice guidance	3.19±0.79
Practice evaluation	2.88±1.00

### 3.3 대상자의 간호활동경험 빈도

#### • 자료수집 간호활동경험

자료수집에 대한 간호활동 14항목 중 60%이상의 학생이 수행해본 항목은 '활력징후측정'이 86.8%, '신체계측(79.7%)', '섭취배설량측정(74.2%)'의 3항목이었다. 수행경험이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특수신체검진(10.4%)', '신체검진(14.8%)'로 나타났다.

#### • 진단 간호활동경험

진단에 대한 간호활동경험은 5항목 모두 60% 이상의 학생이 수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계획 간호활동경험

계획에 대한 간호활동경험은 3항목 모두 60%이상의 학생이 수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수행 간호활동경험

수행에 대한 간호활동 89항목 중 '함께 있어주기'가 73.1%로 수행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이상의 학생이 수행해본 항목은 '투약준비(65.5%)', '당뇨교육(63.3%)', '산소요법적용(62.7%)', '구강간호(62.6%)', '보

조기 사용됨기(62.2%), '보행유지됨기(61.6%)', '내외과적 무균법 준수(61.5%)', '고혈압교육(61.0%)' 등의 9항목이었다.

또한 10% 미만의 학생이 수행경험이 있는 항목은 '변실금 간호(2.2%)', '방광루 관리(2.7%)', '혈역학 상태 감시(2.7%)', '뇌부종 환자 간호(2.7%)', '장루간호(3.3%)', '항암요법 관리(3.8%)' 등의 29항목이었다.

60%이상의 학생이 관찰만 해본 항목은 '손상 피부 드레싱(79.7%)', '인공도뇨 시행(78.6%)', '체액균형유지(71.4%)', '집단검진(70.9%)', '치료 및 진단검사 간호(67.6%)', '수혈간호(66.5%)' 등의 21항목이었다. 그리고 수행 및 관찰에 대한 미경험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변실금 간호(65.9%)'이었고, 그 다음으로 '뇌부종환자간호(62.1%)', '뇌내압 감시(61.0%)', '임신확인진단(59.4%)', '절단환자간호(58.8%)', '태교 교육(56.6%)', '방광루 관리(53.3%)', '좌욕 시키기(52.8%)', '장루간호(52.7%)'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 • 평가 간호활동경험

평가에 대한 간호활동경험은 '간호수행결과분석', '인수인계' 모두 관찰경험만 60%이상으로 나타났다.

#### • 윤리 간호활동경험

윤리에 대한 간호활동 6항목 중 60%이상의 학생이 수행해본 항목은 '비밀유지하기(71.4%)', '확인 의무완수하기(64.3%)' 등의 2항목이었다.

#### • 협동 간호활동경험

협동에 대한 간호활동은 60%이상의 학생이 수행해본 항목은 없었으며, 수행 및 관찰에 대한 미경험 항목은 '건강관리팀과의 의사소통하기(13.8%)', '건강관리팀과 협조하기(12.6%)'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Frequency of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N=223)

Task	Task element	Experience of performance N(%)	Experience of observation N(%)	No experience N(%)	
Data Collection	Observation	1) Consciousness state	88(39.6)	103(46.2)	32(14.2)
		2) Cognition	80(35.7)	113(50.5)	30(13.8)
		3) Speech	78(35.2)	105(47.3)	40(17.5)
	Measurement	4) Motility	80(35.7)	109(48.9)	34(14.8)
		5) Physical condition	86(38.5)	104(46.7)	33(14.8)
		6)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	92(41.2)	91(40.8)	40(17.0)
Interview	Measurement	1) Vital sign	194(86.8)	7(3.3)	22(9.9)
		2) Body measurement	177(79.7)	21(9.3)	25(11.0)
		3) Intake & Output	165(74.2)	33(14.8)	25(11.0)
		4) Physical examination	33(14.8)	122(54.9)	68(30.3)
		5) Special physical examination	23(10.4)	132(59.3)	68(30.3)
Interview	Interview	1) Basic need	82(36.8)	93(41.8)	48(21.4)
		2) Disease insight	64(28.7)	110(49.3)	49(22.0)
		3) Health behavior	56(25.3)	122(54.9)	45(19.8)
	Mean	93(41.7)	90(40.4)	40(17.9)	
Diagnosis	Diagnosis	1) Analysis collected data	142(63.7)	47(20.9)	34(15.4)
		2) Making problem list	138(62.1)	52(23.1)	33(14.8)
		3) Checking related factor	146(65.4)	48(21.4)	29(13.2)
		4) Diagnosing	154(69.2)	39(17.7)	30(13.1)
		5) Deciding the priority of nursing diagnosis	152(68.2)	40(18.0)	31(13.8)
	Mean	146(65.5)	45(20.2)	32(14.3)	
Plan	Plan	1) Setting goal from nursing diagnosis	153(68.7)	38(17.0)	32(14.3)
		2) Setting nursing plans	153(68.7)	39(17.6)	31(13.7)
		3) Deciding the priority of nursing plans	154(69.2)	37(16.5)	32(14.3)
	Mean	153(68.7)	38(17.0)	32(14.3)	

Examination	1) Nursing of treatment & diagnostic exam	45(20.3)	151(67.6)	27(12.1)
	2) Examining health of group	28(12.6)	158(70.9)	37(16.5)
Medication	1) Preparing medication	146(65.5)	55(24.6)	22(9.9)
	2) Explaining medication	89(40.1)	108(48.4)	26(11.5)
	3) Medication	72(32.4)	129(57.8)	22(9.8)
	4) Infecting blood & blood products	35(15.9)	148(66.5)	40(17.6)
	5) Checking effect and side effect of medication	60(26.9)	130(58.2)	33(14.9)
	6) Management of medicines	8(3.8)	109(48.9)	106(47.3)
Management of hygiene	1) Mouth care	140(62.6)	43(19.2)	40(18.2)
	2) Eye care	72(32.4)	59(26.4)	92(41.2)
	3) Sitz bath	33(14.8)	72(32.4)	118(52.8)
	4) Back massage	61(27.5)	93(41.8)	69(30.7)
	5) Dental care	58(25.8)	83(37.4)	82(36.8)
Comfort nursing	1) Control of pain	54(24.2)	135(60.4)	34(15.4)
	2) Promotion of sleep	44(19.8)	118(52.7)	61(27.5)
Nursing on movement and activity	1) Helping ROM	65(29.1)	92(41.2)	66(29.7)
	2) Helping walking	115(61.6)	65(19.1)	43(19.3)
	3) Helping balance	116(62.2)	67(20.2)	40(17.6)
	4) Helping immobility	59(26.4)	108(48.4)	56(25.2)
Nursing on operation	1) Preparing operation & exam	49(22.0)	137(61.5)	37(16.5)
	2) Explaining operation & exam	22(9.9)	168(75.3)	33(14.8)
	3) Nursing on operation	11(4.9)	109(48.9)	103(46.2)
	4) Circulating on Nursing	23(10.4)	101(45.1)	99(44.5)
	5) Controlling infection on operation	13(6.0)	108(48.4)	102(45.6)
	6) Preventing complication	28(12.6)	134(59.9)	61(27.5)
	7) Nursing on recovery from anesthesia	26(11.5)	119(53.3)	78(35.2)
Nursing on respiration	1) Keeping airway	35(15.9)	156(69.8)	32(14.3)
	2) Encouraging deep breathing & Coughing	108(48.4)	85(37.9)	30(13.7)
	3) Applying O2 therapy	118(62.7)	81(26.3)	24(11.0)
	4) Nursing patient with artificial respirator	60(26.9)	116(52.2)	47(20.9)
	5) Applying Ambu bagging	31(13.7)	137(61.5)	55(24.8)
	6) Suction	45(20.3)	151(67.6)	27(12.1)
Nursing on elimination	1) Keeping self voiding	34(15.4)	146(65.4)	43(19.2)
	2) irrigating bladder	12(5.5)	97(43.4)	114(51.1)
	3) Catheterizing bladder	10(4.4)	175(78.6)	38(17.0)
	4) Managing cystostomy	6(2.7)	98(44.0)	119(53.3)
	5) Training urination & defecation	16(7.1)	102(45.6)	105(47.3)
	6) Giving an enema	11(4.9)	142(63.7)	70(31.4)
	7) Nursing enterostomy	7(3.3)	98(44.0)	118(52.7)
	8) Nursing fecal incontinence	5(2.2)	71(31.9)	147(65.9)
Control of body temperature	1) Applying cold therapy	96(42.9)	78(35.2)	49(21.9)
	2) Applying hot therapy	108(48.4)	74(33.0)	41(18.6)
Management of impaired skin integrity perfusion	1) Nursing Op wound	15(6.6)	154(69.2)	54(24.2)
	2) Dressing damaged skin	16(7.1)	178(79.7)	29(13.2)
	3) Preventing skin damage	33(14.8)	147(65.9)	43(19.3)
	4) Nursing amputation patient	7(3.3)	85(37.9)	131(58.8)
Management of tissue perfusion	1) Keeping and improving circulation	35(15.9)	142(63.7)	46(20.4)
	2) Preventing and controlling bleeding	23(10.4)	157(70.3)	43(19.3)
	3) Monitoring hemodynamics	6(2.7)	145(64.8)	72(32.5)
	4) Keeping balance of body fluid	13(6.0)	159(71.4)	51(22.6)
	5) Nursing patient under hemodialysis	10(4.4)	138(62.1)	75(33.5)
	6) Nursing patient with peritoneal dialysis	7(3.3)	108(48.4)	108(48.3)
	7) Nursing patient with cerebral edema	6(2.7)	78(35.2)	139(62.1)
	8) Monitoring intracranial pressure	15(6.6)	72(32.4)	136(61.0)

Implementation	Nursing on nutrition	1) Feeding food	55(24.7)	135(60.4)	33(14.9)
		2) Feeding via tube	40(18.1)	127(57.1)	56(24.8)
		3) Feeding via gastrostomy	8(3.8)	118(52.7)	97(43.5)
		4) Applying TPN	21(9.3)	159(71.4)	43(19.3)
		5) Managing weaning food	42(18.7)	69(30.8)	112(50.5)
	Nursing on delivery	1) Diagnosing pregnancy	11(4.9)	80(35.7)	132(59.4)
		2) Teaching prenatal care of an unborn child	10(4.4)	87(39.0)	126(56.6)
		3) Preparing delivery	16(7.1)	136(61.0)	71(31.9)
		4) Helping delivery process	20(8.8)	135(60.4)	68(30.8)
		5) Assessing newborn	40(18.1)	131(58.8)	52(23.1)
		6) Nursing newborn immediately after delivery	70(31.3)	99(44.5)	54(24.2)
		7) Nursing women delivered of a child	27(12.1)	125(56.0)	71(31.9)
		8) Assessing women delivered of a child	25(11.0)	126(56.6)	72(32.4)
		9) Managing breast and breast feeding	20(8.8)	126(56.6)	77(35.6)
	Management of safety	1) Checking & instructing safety measures	42(18.7)	130(58.2)	51(23.1)
		2) Managing dangerous article	37(16.5)	136(61.5)	50(23.0)
	Management of admission and discharge	1) Nursing admission	91(40.7)	103(46.2)	29(13.1)
		2) Nursing discharge	64(28.6)	130(58.2)	29(13.2)
		3) Nursing transfer	97(43.4)	96(42.9)	30(13.7)
	Nursing on emergency	1) CPR	15(6.6)	118(52.7)	90(40.7)
		2) Monitoring EKG	88(39.6)	104(46.7)	31(13.7)
	Support	1) Being together	163(73.1)	27(12.1)	33(14.8)
		2) Supporting self-respect & body image	98(44.0)	72(32.4)	53(23.6)
	Teaching	1) DM	119(63.3)	67(20.2)	37(16.5)
		2) Hypertension	136(61.0)	53(23.6)	34(15.4)
		3) Enterostomy	10(4.4)	97(43.4)	116(52.2)
		4) Allergy and asthma	34(15.4)	109(48.9)	80(35.7)
		5) Lumbago patient	32(11.0)	88(39.6)	103(49.4)
		6) Artificial joints	32(14.3)	89(40.1)	102(45.6)
	Communication	1) Making therapeutic relationship	32(14.3)	89(40.1)	102(45.6)
2) Enforcing therapeutic communication		118(52.7)	69(30.8)	36(16.5)	
3) Keeping facilitating relationship		101(45.1)	77(34.6)	45(20.3)	
Control of infection	1) Keeping surgical-medical aseptic technique	137(61.5)	59(26.4)	27(12.1)	
	2) Isolating	80(35.7)	101(45.1)	42(19.2)	
	3) Protecting patient in low immune state	33(14.8)	110(49.5)	79(35.7)	
	Mean	49(22.0)	108(48.4)	66(29.6)	
Evaluation	1) Analysing nursing implementation result	40(18.1)	151(67.6)	32(14.3)	
	2) Takeover a duty	22(9.9)	175(78.6)	26(11.5)	
	Mean	31(13.9)	163(73.1)	29(13.0)	
Ethics	1) Informing on the rights of clients	97(43.4)	88(39.6)	38(17.0)	
	2) Keeping secret	159(71.4)	34(15.4)	30(13.2)	
	3) Meeting duty of watchfulness	118(52.7)	76(34.1)	29(13.2)	
	4) Meeting duty of confirmation	143(64.3)	56(25.3)	24(10.4)	
	5) Meeting duty of explanation and consent	98(44.0)	102(45.6)	23(10.4)	
	6) Defending client	113(50.5)	78(35.2)	32(14.3)	
	Mean	121(54.3)	72(32.3)	30(13.4)	
Cooperation	1) Communicating effectively with health team	80(35.7)	113(50.5)	30(13.8)	
	2) Cooperating with health team	85(37.9)	110(49.5)	28(12.6)	
	Mean	83(37.2)	112(50.2)	28(12.6)	
	Total Mean	65(29.1)	100(44.8)	58(26.1)	

[Table 4]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y Subject's Characteristics

(N=223)

Variable	Category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rade	3	3.63± 0.43	-1.150 (.188)	3.21± 0.49	-1.497 (.791)
	4	3.64± 0.37		3.34± 0.48	
Gender	Male	3.86± 0.53	2.888 (.047)	3.46± 0.54	2.174 (.353)
	Female	3.60± 0.38		3.22± 0.48	
Motivation for Entering College	Own choice <sup>a</sup>	3.93± 0.40	1.616 (.188)	3.24± 0.49	3.689 (.013)
	By grade <sup>b</sup>	3.65± 0.76		3.96± 0.66	
	Family recommendation <sup>c</sup>	3.55± 0.33		3.22± 0.46	
	Teacher, Friend recommendation <sup>d</sup>	3.58± 0.58		3.19± 0.35	
Health Status	Very healthy <sup>a</sup>	3.81± 0.39	3.337 (.021)	3.48± 0.46	4.557 (.004)
	Healthy <sup>b</sup>	3.59± 0.41		3.15± 0.43	
	Normal <sup>c</sup>	3.56± 0.40		3.25± 0.50	
	Bad <sup>d</sup>	3.57± 0.24		2.95± 0.49	
Major Satisfaction	Satisfy <sup>a</sup>	3.80± 0.42	12.782 (.000)	3.34± 0.48	2.035 (.134)
	Normal <sup>b</sup>	3.53± 0.35		3.19± 0.49	
	Dissatisfy <sup>c</sup>	3.29± 0.37		3.19± 0.54	
Difficult Relationship	Relation with head nurse	3.58± 0.36	1.416 (.231)	3.17± 0.43	2.766 (.030)
	Relation with other field Staff	3.76± 0.46		3.35± 0.63	
	Relation with patient	3.69± 0.55		3.55± 0.53	
	Relation with Colleague	3.71± 0.44		3.35± 0.62	

###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성, 임상실습 만족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자기주도성은 성별 ( $t=2.888, p=.047$ ), 건강상태( $F=3.337, p=.021$ ), 간호학만족도( $F=12.782, p=.00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한 요인에 대해 Scheffè 검정을 한 결과, 건강상태가 아주 좋은 대상자가 보통인 대상자보다 자기주도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 대해서 만족(3.80±0.42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3.53±0.35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불만족(3.29±0.37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자기주도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는 진학동기( $F=3.689, p=.013$ ), 건강상태( $F=4.557, p=.004$ ), 실습중 어려웠던 관계( $F=2.766, p=.03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요인에 대해 Scheffè 검정한 결과, 스스로 선택에 의해 진학한 대상자가 성적에 의해 진학한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건강상태가 아주 좋은 대상자가 좋은 대상자보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4].

### 3.5 대상자의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기주도성과 간호활동경험( $r=.243, p<.01$ ), 자기주도성과 임상실습만족도( $r=.495, p<.001$ ), 간호활동경험과 임상실습만족도( $r=.339, p<.001$ )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5].

[Table 5] The Relationship among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223)

	Self-Directedness r(p)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r(p)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r(p)
Self-Directedness	1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243 ( $<.01$ )	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495 ( $<.001$ )	.339 ( $<.001$ )	1

### 3.6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 실시결과, 자기주도성( $\beta=4.39, p<.001$ ), 간호활동경험( $\beta=.233, p<.001$ ) 모두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회귀모형에 대한 총 설명력은 28.7%이었다[Table 6].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223)					
Variable	B	$\beta$	t	Adj R <sup>2</sup>	F(p)
Constant	.429		1.222		
Self-Directedness	.524	.439	6.438	.287	33.878 (<.001)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425	.233	3.415		

## 4.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임상실습 중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을 위한 임상실습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기주도성은 3.63±0.83점이었으며, 자기주도성은 이전의 학습경험에 의해 이루어지고[26],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8] 단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Kim(2009)[27] 연구의 3.66점, Jung(2012)[28] 연구의 평균 3.71±0.40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자기주도성은 학습상황에서의 학습내용, 환경적 요인 및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21], 임상실습교수는 적극적으로 임상현장에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12]. 또한 간호대학생이 실습의 주체임을 인식시켜 배움에 대한 주도성을 가지고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26]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29].

자기주도성 중 가장 높았던 하위영역은 '임상실습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났고 Cho(2007)[29], Kim(2009)[27], Jung(2012)[28]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 이를 지지한다. 임상실습에 대한 애착은 학습자가 실습하려는 욕구와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실습 목표를 설

정하여 주체적으로 실습을 수행하는 것으로서[31], 이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인으로서 정체감을 확립하고 애착을 형성하여 실습에 임한 결과로 생각된다[28].

대상자의 자기주도성은 간호학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Jung(2012)[2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업에 임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담당교수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26],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수법 개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간호활동경험의 총 7영역 중 '간호계획(68.7%)'의 수행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간호진단(65.5%)', '윤리(54.3%)'순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수행(22.0%)'영역의 수행경험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간호계획이나 간호진단은 교과목 수업인 간호과정 및 임상실습집담회를 통해서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경험이 높으나, 간호학생의 실무능력강화를 위한 기반이 되는 실제 간호수행경험 정도는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총 121개의 항목 중 임상실습 동안 60%이상의 대상자가 수행해본 항목은 '활력징후 측정(86.8%)', '신체계측(79.7%)', '섭취, 배설량 측정(74.2%)', '함께 있어주기(73.1%)' 등의 22항목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임상실습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행중심의 교육보다 관찰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한 Kim(2003)[7]의 결과와 학생의 실습경험이 주로 단순한 간호활동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고한 Lee 등(1998)[11]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는 최근 임상현장에서 간호대상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전문인력에게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 요구의 증가로 인해[6] 임상실습 중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직접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적으며, 간호사들이 고위험의 간호활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수행해볼 기회를 주지 않는 실정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32].

더욱이 학교자체의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하고 근처의 중, 대형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 실습기관 환경의 차이로 인한 요인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상실습기관의 특성에 따른 간호활동경험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사로서 기본적인 역할수행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간호활동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와 병원의 실습지도자들이 함께 임상실습을 계획하고, 필수간호활동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2].

대상자의 수행 및 관찰에 대한 미경험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변실금 간호(65.9%)’, ‘절단환자간호(58.8%)’, ‘뇌 부종 환자간호(62.1%)’, ‘뇌내압 감시(61.0%)’, ‘임신확인 진단(59.4%)’, ‘태교 교육(56.6%)’, ‘방광루 관리(53.3%)’, ‘좌욕시키기(52.8%)’, ‘장루간호(52.7%)’, ‘장루교육(52.2%)’ 등이었다. 변실금 간호, 방광루 관리 등은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구하는 간호활동으로서 임상현장에서 잘 접해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태교 교육, 임신 진단 등의 간호활동은 최근 출산을 감소로 인해 모성간호 관련 현장실습지 확보가 부족해지면서 병동위주의 실습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6], 잘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요구조사 결과 실제 간호사 역할 해보기에서 높은 요구를 보였던 Kwon과 Seo(2012)[33]의 연구처럼 간호사로서의 임상수행을 위해 필요하지만 임상실습을 통해서 경험하기 힘든 간호활동 항목을 미리 파악하여 졸업 전 포괄적인 간호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교내 핵심간호활동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표준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OSCE실습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 또한 대학차원에서 실습현장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간호활동을 경험하고 핵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 및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실습지도 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6].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는  $3.27 \pm 0.88$ 점이었으며, 이는 Kim(2006)[34] 연구의  $3.51 \pm 0.38$ 점, Sung(2010)[16] 연구의  $3.38 \pm 0.49$ 점보다 낮은 수준이며, 본 연구대상자는 정해진 대학병원 실습지가 아닌 인근의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실습을 수행하고 있어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임상실습 만족도 중 가장 높았던 하위영역은 ‘실습교과’ 영역으로 Kim(2006)[34], Park 등(2011)[17], Lee 등(2004)[25]의 연구와 일치하지만, Kim(2009)[27]과 Jung(2012)[28]의 연구에서는 ‘실습지도’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 실습대상 및 실습기관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임상실습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하위영역은 ‘실습평가’로서 Kim(2009)[27],

Kang(2010)[35]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실습평가 점수는 성적 및 졸업 후 취업과도 바로 직결되는 부분으로서, 학생들에게 실습 전 평가기준과 실습 후 전체점수에 대한 공지는 되었으나, 개별 세부평가 점수에 대한 공지가 되지 않은데서 기인한 결과 [27]로 생각된다. 이에 과목별 뚜렷한 실습평가기준 및 도구 개발이 필요하며, 실습 전, 후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공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임상실습 후 실습교육 목표달성에 대한 측정을 통해 실습지도와 교육관리 개선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여 학생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6].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진학한 대상자가 성적에 의해 진학한 대상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 선택동기에 따라 임상실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Kang(2010)[35]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며, 본인 스스로 간호학을 선택하여 간호수행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때 임상실습만족도 역시 높아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15].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4년제 학생( $3.34 \pm 0.48$ 점)이 3년제 학생( $3.21 \pm 0.49$ 점)의 임상실습만족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제 간 임상실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Sung(2010)[16]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며, 4년제보다 3년제 학생의 낮은 임상실습만족도는 학교별 실습기관의 차이와 교육환경과 관련이 있음을 언급한 Jang 등(2002)[36]의 연구처럼, 3년제 학생이 다양한 간호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실습현장 확보와 실습환경의 조성을 위한 학교차원의 지원 및 대학과 실습기관의 협력 및 교류 [28]가 필요하다.

Lindsey 등(1997)[37]이 임상실습만족도는 실습경험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기인한 주관적인 반응이라고 하였듯이, 실습 전 충분한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현장 보장을 통한 학생중심의 학습지도, 간호활동경험을 위한 균등한 기회부여를 통해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전공에 대한 자부심 및 교육의 효율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38].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성과 임상실습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자기주도성과 임상실습만족도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난 Kim(2009)[27], Jung(2012)[28]의 연구, 임상실습경험과 임상실습만족도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난 Lee(2001)[12]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자기주도성과 간호활동경험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력 있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Kim(2009)[27]의 연구에서 자기주도성이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임상실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간호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임상실습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한 Lee 등(2001)[3]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이며, 자기주도성과 간호활동경험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아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자기주도성 증진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및 학습에 대한 태도가 필수적인 요인이다[28]. 이에 간호대학생 스스로 자기주도적 태도를 가지고 실습목표를 설정하여, 주요 간호상황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진하고, 다양한 간호상황 및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환경의 조성 및 임상현장지도자의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며,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증진 및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28].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서, 자기주도성과 간호활동경험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는데 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간호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기관 확보 및 환경 조성과 간호대학생이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간호활동을 경험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임상현장지도자의 확보가 필요하다. 더불어 간호대학생의 자기 주도성 함양을 위해 학생의 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교수학습법 및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외 핵심역량강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학생의 참여에 대한 지원활동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고 간호사로서의 임상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함양,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임상실습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마련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기주도성과 간호활동경험은 임상실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사로서 임상수행의 기초가 되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마련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임상실습 기관 별 간호활동경험에 대한 반복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활동경험에 따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실습증진을 위한 교내 프로그램 개발, 임상실습지침서 개정 및 평가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

- [1] E. J. Lee, W. H. Jun, "Sense of coherenc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2, pp.163-171,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63>
- [2] K. E. Lee, N. S. Ha, S. Y. Kil,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sclosur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0, No. 3, pp. 571-583, 2000.
- [3] A. K. Lee, J. A. Kim, M. K. Joo, et al, "An analysis of nursing care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experience for improvement of clinical performance education", *Journal of Kyungbok College*, Vol. 5, pp.523-535, 2001.
- [4]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A report on evaluation of nursing schoo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08.
- [5] J. H. Song, M. W. Kim, "Study on clinical education for nursing in hospital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2, pp.251-264,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251>
- [6] M. H. Cho, I. S. Kwon,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 Education*, Vol. 13, No. 2, pp 143-154, 2007.
- [7] M. W. Kim, "Development of objectives of Nursing clinical education, based on the nursing core competen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2003.
- [8] J. E. Ko,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and self directed learning readiness", *Bulletin of Dongnam Health College*, Vol. 21, No. 2, pp.97-106, 2003.
- [9] Levett-Jones. T. L, "Self directed learning :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for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Vol. 25, No. 5, pp. 363-368, 2005.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05.03.003>
- [10] Slevin. O. D, Lavery. M. C, "Self-directed learning and student supervision", *Nurse Education Today*, Vol. 11, No. 5, pp.368-377, 1991. DOI: [http://dx.doi.org/10.1016/0260-6917\(91\)90037-B](http://dx.doi.org/10.1016/0260-6917(91)90037-B)
- [11] J. H. Lee, Y. H. Sung, Y. Y. Jung, et al, "Analysis of nursing care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4, No. 2, pp.249-263, 1998.
- [12] S. E. Lee,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and direction for clinical education: Focused on Maternity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7, No. 2, pp.333-348, 2001.
- [13] N. Y. Yang, S. Y. Moon, "Relationship of self- 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2, pp. 216-225, 2011. DOI: <http://dx.doi.org/10.1111/jkana.2011.17.2.216>
- [14] K. E. Park, S. E. Lee, "A correlation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for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s", *Bulletin of Dongnam College*, Vol. 20, No. 2, pp.83-96, 2002.
- [15] E. J. Shin, "A study related to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practice and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Journal of Korean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5, No. 3, pp.380-386, 2008.
- [16] M. H. Sung, "Correlation between motivation to achieve,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for diploma and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7, No. 1, pp.90-98, 2010.
- [17] M. S. Park, M. H. Lee, J. A. Gu, "Clinical competency, professional self 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 29, No. 2, pp.111-123, 2011.
- [18] I. S. Park, S. H. Park, S. S. An,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of nursing student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Vol. 6, No. 1, pp.39-52, 2012.
- [19] Faul. F, Erdfelder. E, Lang. AG, Buchner. A,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No. 2, pp.175-191, 2007. DOI: <http://dx.doi.org/10.3758/BF03193146>
- [20] Guglielmino. P. J, Guglielmino, L. M, Long. H. B,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erformance in the work place: implications for business,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 16, No. 3, pp.303-317, 1987. DOI: <http://dx.doi.org/10.1007/BF00148972>
- [21] K. O. Yoo, "Study on the self-direction of adult learners and its demographic and socio-psychological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1997.
- [22] Korean Nurse Association, "A report on development of practice standard for nursing", Korean Nurse Association, 2004.
- [23] S. J. Han,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6, No. 1, pp.132-146, 2000.
- [24] K. J. Cho, H. S. Kang,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4, No.2, pp.63-74, 1984.
- [25] S. H. Lee, S. Y. Kim, J. A. Kim, "Nursing student, nurses, image of nurse, image of health personnel,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0, No. 2, pp. 219-231, 2004.
- [26] O'Shea. E,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e educ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43, No. 1, pp.62-70, 2003. DOI: <http://dx.doi.org/10.1046/j.1365-2648.2003.02673.x>
- [27] Y. H. Kim, "Relationship of self 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6, No. 3, pp.307-315, 2009.
- [28] J. S. Jung,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linical compet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8, No. 1, pp.53-61,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53>

- [29] Y. H. Kim, "Effects of utilizing animation prior to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on learning motivation and self directedness in student nurses", *Journal of Korean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7, No. 2, pp.240-248, 2010.
- [30] H. S. Cho,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 32, No. 2, pp.57-72, 2007.
- [31] S. H. Kim, "Relations among learner's personality types self direction, attitudes and self efficacy toward technology and achievement in cyber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7.
- [32] M. S. Kim, "A study of faculty practice for clinical teaching",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 No. 1, pp. 5-16, 1995.
- [33] I. S. Kwon, Y. M. Seo, "Nursing students' needs for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1, pp.25-33, 2012.
-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25>
- [34] Y. H. Kim, "Autonomy, teaching effectiven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for fundamentals nursing clinical practice in student nurses", *Journal of Korean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3, No. 1, pp.6-14, 2006.
- [35] H. O. Kang, "A study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2010.
- [36] I. S. Jang,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health practice competency and satisfaction of school health practi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Vol. 16, No. 2, pp.423-435, 2002.
- [37] Lindsey. D. L., Henly. S. J, Tyree. E. A, "Outcomes in an academic nursing center: client satisfaction with student service", *Journal of Nursing Care Quality*, Vol. 11, No. 5, pp.30-38, 1997.
- DOI: <http://dx.doi.org/10.1097/00001786-199706000-00008>
- [38] J. H. Jang, K. Y.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Nursing Science Research institute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Vol. 4, No. 1, pp.175-194, 2000.

## 조 인 영(In Young Cho)

[정회원]



- 2013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박사과정 중
- 2013년 3월 ~ 현재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보건교육